

전북 찾은 김부겸 “저출산 극복 최선”

〈행자부 장관〉

완주 가족문화교육원 방문
사업청취·프로그램 참여

순창군에 특교세 증서 수여
사업 실효성 확보 ‘당부’

행정자치부 장관(김부겸)은 12일,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가족문화교육원을 방문했다.

인구의 날(7.11) 기념주관을 맞아,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 선도 지자체인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을 방문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 추진현황을 청취,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했다.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은 지난해 행자부에서 지자체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억5천만 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6월 개관했다.

가족문화교육원에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사업단, 여성단체협의회, 평생학습센터, 교육통합지원센터 등이 입주해 있으며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세대 간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3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김 장관은 4월 ‘지자체 저출산 극복 지원 사업’ 공모에서 7월 11일(화) 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12일 오후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을 방문, 임산부와 함께 하는 현장 간담회에서 출산용품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종 선정된 순창군에 특별교부세(4.5억원) 증서를 수여했다.

순창군의 ‘해피니스 PCN 토탈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은 옛(보건의료원(3층)을 새 단장(리모델링)해, 산모실터, 어린이 놀이시설(키즈카페), 아이 돌보방,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정소

년 가장직업체험관 등을 설치하고, 출산·양육 기반시설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 임신·육아 교육·일자리 등을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PCN은 Pregnancy(임신), Childbirth(출

산), nurture(양육)이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이번 공모 사업이 지자체가 지역 저출산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실있는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 못 찾기’ 힘보탤 터

명예도지사에게 송현섭 재경전북도민회장 위촉

전북도는 12일, 전라북도 서울사무소에서 송해진 전북도지사, 재경전북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현섭 재경전북도민회장(사진)을 명예도지사로 위촉했다.



송현섭 재경전북도민회장은 2012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명예도지사로 위촉돼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제언과 마당발 인맥을 활용하여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 등 전북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지난해 12월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의 입기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재위촉, 2019년 7월까지 전라북도 명예도지사로서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송 지사는 “고향에 대한 큰 애착으로 지역인재양성과 출향 도민의 연대

감과 일체감을 다지고자 항상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새 정부 출범은 전북발전의 호기일에 틀림없으므로 이 기회를 성공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민회장님을 비롯한 출향 도민들도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위촉패를 받은 송 회장은 “도민과 300만 출향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면서 “올해는 전북방문의 해 관광객유치 캠페인 등 지역의 힘을 하나로 결집해 ‘전북 못 찾기’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현섭 회장은 정읍시 칠보면 출신으로 전주고과 성균관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제12·13·15대 국회의원과 대한하키협회장,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 직무대행을 역임했다. 2010년 6월부터 재경 전북도민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삼락농정 포럼 전문가 워크숍 개최

전북도의 농가 간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도내 농가의 하위 20%구간과 상위 20%구간의 농가소득 격차를 분석한 결과 2005년 9.5배에서 2015년 11.6배로 증가, 하위 20%의 소득 증가액은 81만 3천원인 반면 상위 20%의 소득 증가액은 24,801만1천원으로 하위 소득 대비 3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에서는 농가 양극화 해소 방안”이란 주제로 삼락농정 포럼 제1차 전문가 워크숍을 12일 전북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전북연구원 조승현 부연구위원은 “전북 농가 양극화 실태” 주제 발표에서 농가의 영농규모별, 경영주 연령별 농가소득 현황 분석을 통해 중소농 고령화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 발굴이 필요하며 농촌사회 유지와 농의소득 향상을 위해 비농업부문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마을기업 등 다양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통해 중소 고령농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도의회 교육위, 부안여고생 성추행 사건 대책 촉구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12일 제345회 임시회에서 김규태 부교육감을 출석시켜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 관련 책임소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교육위 의원들은 도교육청이 사법당국의 수사와 별도로 철저한 진상 조사와 피해학생대책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양용모(전주8) 의원은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은 전라북도와 교육가족 전체를 망신준 것으로 향후 행정사무 조사까지도 고려 대상”이라면서 “사

립학교에 대한 통제에 한계가 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조병서(부안2) 의원은 “민약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이 SNS를 통해 여론에 주목을 받지 않았더라면 교육청의 조치는 없었을 것이 아니냐”면서 “이는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우리가 어쩔 책임이 있느냐는 교육청의 소극적인 자세를 내보인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관리감독 허술함을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의회 매거진 ‘여름호’ 선보여

긴급현안질문·도정질문·휴가철 가볼만한 곳 등 수록

전북도의회 강행물편집위원회(위원장 허남주)는 12일 의회소식지 ‘전북의회21 여름호(제59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여름호는 지난 4~6월까지 3개월간 긴급현안,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5분 자유발언, 현장의정활동, 2016년도 전북도 및 전북도교육청 결산과 예비비승인 내용을 수록했다.

또한 군산조선소와 넥슬론 정상화,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건의 내용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학습더터학습 교육지원,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제정도 담았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라북도에서 여름나기 기획특집 면을



구성해 도내 14개 시·군의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 관광지 등을 소개했다. /김진성 기자

하남주 강행물편집위원장(행정자치위원회·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의회소식지는 도의원들이 도민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전북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요 내용을 수록해 발행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여름호는 휴가철을 앞두고 14개 시·군의 주요 명소 등을 소개하는 기획특집 지면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의회21’은 연4회, 점자책 포함 분기별 4,600부를 발간,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타 시도 및 의회, 국회, 시각장애인도서관 등에 우편 발송하고 있으며, 도의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로 구독 신청 시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김진성 기자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철회해야

민주당 소속 도의원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이마트 노브랜드(No Brand)의 입점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전북도의원인 국주영은·정호영·양성민 의원은 12일 성명을 통해 “동네골목상권까지 싸늘이하겠다는 이마트 노브랜드의 탐욕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마트 노브랜드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전주 효자동과 삼천동, 송천동 등 3개 지역에 개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SSM 진출은 지역상인들의 생존권을 유린하고 지역발전의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마트 노브랜드는 동종 제품을 자체 브랜드화한 유통체계 때문에 지역 중소상인들이 원가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며 “소규모지역업 경제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이에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킬수 있는 이마트 노브랜드 SSM 입점을 즉시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뉴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